

出土文獻을 통해서 본 漢語 文尾語氣詞의 起源과 運用 考察*

姜允玉**

◁ 목 차 ▷

1. 머리말
 2. 출토문헌을 활용한 어법 연구 성과
 - 2.1 甲骨文
 - 2.2 金文
 - 2.3 竹簡과 帛書
 3. 출토문헌을 통해서 본 문미어기사의 기원과 “乎”의 발전
 - 3.1 문미어기사의 기원
 - 3.2 “乎”의 발전 과정
 4. 출토문헌과 전해져오는 문헌 중의 문미어기사 운용
 5. 맺음말
-

1. 머리말

고대 한어에서는 의문과 종결, 기원 및 감탄 등의 어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문두에 “夫”·“唯”, 문장의 중간에는 “其”·“也”, 문장 끝에는 “矣”·“乎”·“哉”·“也” 등 여러 가지 어기사를 썼다. 이 중에서 문두와 문중어기사는 이미 사라졌으며, 문미어기사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화 발전을 거치면서 현대 한어로 이어져 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문헌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던 문미어기사의 기원문제와

* 본고는 학술진흥재단 2004년도 신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KRF-2004-00 A00120)

** 명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상고시기 한어 문미어기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문제와 어기사의 운용은 오랫동안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아직도 완전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일찍이 곽말약 선생은 丁未卜:侑咸戊、學戊乎?(《殷契粹編》425) 문장의 “乎”를 문미어기사로 여겼으나, 王力과 郭錫良은 서주 이전 시기에는 어기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¹⁾ 李達良 역시 갑골문과 금문에 그 예가 적으므로 곽씨의 설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하였고,²⁾ 張振林은 출토문물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춘추시기에 시작되었음을 주장하였다.³⁾ 이렇듯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李學勤과 裘錫圭 선생은 여전히 상대 갑골문에서 어기사의 기원을 찾았고, “抑”과 “執”을 문미어기사의 기원으로 삼았다.⁴⁾ 그렇다면 과연 어느 시기부터 문미어기사가 사용되었으며, 어떤 문미어기사를 기원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한 번쯤 정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또 하나, 상고시기에 사용된 문미어기사의 운용 문제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즉, 서주 춘추시기의 고문헌인 《詩經》에 쓰인 수많은 어기사가 동시기 고문헌 《書經》에는 9개의 어기사 즉, “哉(74)·若(10)·矣(7)·焉(4)·乎(1)·已(1)·止(1)·其(1)·所(1)” 밖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동시기 西周 청동기 명문에는 단 한 차례도 어기사가 출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詩經》의 어기사가 오랜 세월 유전되는 동안 후대인에 의하여 첨가된 것이라는 설이 난무하게 되었다.

필자는 문미어기사에 산재된 문제들 뿐 아니라, 많은 고대 어법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전해져 오는 고문헌을 대상으로 한 편면적인 연구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 일찍이 왕국유 같은 학자가 출토문헌

- 1) 王力(1980), 《漢語史稿》中冊, 中華書局, 449p.
郭錫良(1988,1989), 〈先秦語氣詞新探〉, 《古漢語研究》1988年1期, 1989年1期.
- 2) 李達良(1980), 《中國語文研究》, 香港中文大學 1期.
- 3) 張振林(1982), 〈先秦古文字材料中的語氣詞〉, 《古文字研究》第7輯, 中華書局.
- 4) 李學勤(1980), 〈關於師祖卜辭的一些問題〉, 《古文字研究》第3輯, 中華書局.
裘錫圭(1988), 〈關於殷墟卜辭的命辭是否問句的考察〉, 《中國語文》1期.

과 고문헌을 대조 연구하는 '이증증거법'이라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고대 중국어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신중국 성립 이후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갑골문, 금문, 전국시기 죽서본과 한대 백서본 등 출토문헌 자료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⁵⁾ 본 논문은 한어 문미어기사의 기원과 운용 연구에 있어 출토문헌과 고문헌을 활용한 이증증거법과 역사언어학 방법을 사용하여 풀어나갈 것이다.⁶⁾

2. 출토문헌을 활용한 어법 연구 성과

중국은 역대로 古籍의 정리 작업을 통해 많은 문헌을 보전하고 있다. 특히, 역사적인 경험과 교훈을 문헌이라는 형식으로 전하고 있어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수량 또한 방대하여 '浩如烟海'라는 말로 형용되곤 한다. 신중국 성립 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지하에서 출토된 문헌을 이용한 기존 문헌의 고증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 고대 한어를 연구함에 있어 전해져 오는 고문헌 자료만을 이용해서 당시의 언어를 살펴보는 것이 불완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문미어기사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언급하기에 앞서 출토문헌이 고대 어법연구에 활용된 성과를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5) 于省吾先生은 《商周彝器通考序》에서 “秦漢 이전의 어문학, 경학, 제자학, 역사지리학 모두가 고대 기록에 쓰여진 고문자를 시작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전해오는 서적만을 근거로 삼는다면 의심스럽거나 잘못된 글자들로 인해 근본을 밝혀낼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6) 《馬氏文通》 이후 어법 연구가 서구 언어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지 1세기가 지났다. 초기의 어법 연구는 공식적 어법 현상 탐구가 위주였으나, 王力の 《漢語史稿》를 시작으로 周法高 《中國古代語法》, 潘允中 《漢語語法史概要》, 楊白俊·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등이 통시적인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언어 발전사의 관점에서 개괄하는 성과를 보여 주었다. 특히, 郭錫良은 '대사의 역사 발전 과정을, 唐鈺明은 '피동문'의 역사 발전 과정 연구를, 大西克也는 고문자 자료를 통한 '主之謂' 구조의 역사적 발전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모두 역사 어법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보여준 예이다.

2.1 甲骨文

갑골문 자료 발굴 이전에는 동한 許慎의 《說文解字》가 중국 고문자 연구의 주된 근거가 되었다. 小篆보다 1000여 년 앞선 甲骨文이 발견되어 현재까지 출토된 字數가 약 4000여 字에 달한다. 《說文解字》의 小篆, 兩周시기의 金文의 예를 통해 3분의 1 정도가 고석되었고 이는 고대 언어학 연구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 특히, 최근 20년 동안 갑골문 출토 자료를 이용하여 고대 한어 어법을 연구한 성과는 실로 괄목할만하다.

趙誠은 갑골문 품사를 분류하여 품사의 점유현상을 밝혔으며,⁷⁾ 張玉金은 복사의 “暨”의 용법과 “惠”와 “唯”가 어기조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기부사에 속하며 어기를 강조하는 작용이 있다고 연구하였다.⁸⁾ 張선생은 또 《詩經》·《尚書》중의 허사 “誕”이 동사 “延”에서 허화된 것으로 여기고 그 기원을 갑골문의 “延”에서 찾았으며,⁹⁾ 季旭昇은 출토문헌의 “惠”용법과 《詩經》을 서로 대조하여 과거 《詩經》의 “惠”에 대한 해석 보류를 “眞的”, “的確”로 해석하면서 산재해 있던 문제를 해결하였다.¹⁰⁾ 구법에 관한 연구 역시 수확이 풍부하였다. 陳夢家, 管燮初 등은 복사의 命辭는 의문문이라고 하였으나, 李學勤과 裘錫圭는 모든 명사가 의문문이 아니라는 반박론을 폈으며, 陳昭容은 여러 학자의 설을 종합하여 갑골문에는 “于”자식 피동문만 존재하며 피동문이 짝이 트는 시기이고, 서주 시기 금문에는 “見”자식, “爲”자식이 쓰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¹¹⁾

7) 趙誠(1992), 〈甲骨文動詞探索〉, 《古文字研究》第19輯, 中華書局.

8) 張玉金(1990), 〈卜辭中暨的用法〉, 《中國語文》1期.

9) 張玉金(1988), 〈甲骨卜辭中“惠”和“唯”的研究〉, 《古漢語研究》1期.

10) 季旭昇(1996), 〈從古文字談「詩經」中幾個特殊的“惠”字的解釋〉, 《于省吾教授百年誕辰紀念文集》, 吉林大學出版社.

11) 陳昭容(1998), 〈關於“甲骨文被動式”研究的檢討〉, 《甲骨文發現一百年學術研究會討論集》

2.2 金文

《金文著錄簡目》에 수록된 자료에 의하면 명문이 새겨진 청동기물은 7,312건이며,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출간한 자료인 《殷周金文集成》에 의하면 1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金文의 발견은 甲骨文과 마찬가지로 고문헌의 校訂과¹²⁾ 語言文字學사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詩經·豳風·七月》의 “以介眉壽”, 《詩經·小雅·楚》의 “以介景福”, 《詩經·小雅·甫田》의 “以介雅稷泰”에 쓰인 ‘介’字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줄곧 논란이 있어왔다. 그런데 裘錫圭가 청동기 銘文에 있는 자료를 통해 “介”字는 소원을 비는 뜻을 의미하는 “丐”字로 해석해야 한다고 고증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였다. 어법 분야에 있어서는 趙誠이 금문의 “隹·唯(誰·雖)”의 용법을 분석하고, 금문 “于”가 명사, 동사, 전치사로 쓰인 용례를 정리하였으며,¹³⁾ 王暉는 대량의 금문 자료를 가지고 전해져 오는 문헌과 대조하여 “初始”와 “今”의 의미가 있음을 밝혀냈다.¹⁴⁾ 唐鈺明은 정량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其”자가 대사로 쓰인 것은 서주 중기와 말기 이후의 일이며, 상주 금문에 이미 문언과 백화의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혀냈다.¹⁵⁾ 뿐만 아니라, 唐씨는 어법학자들이 동량사의 표시법을 “數+動”식만 언급하고 있었는데 “動+數”식이 서주 금문시기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¹⁶⁾ 이 밖에도 陳永正은 서주와 춘추시기 청동기 명문 중의 허사를 접속사와 어기사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으며,¹⁷⁾ 趙平安은 청동기 명문에는 자주 보이는 “주어+之+술어+기물명”이 겹쳐 형식임을 밝혀내어 선진문헌을 이해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었

12) 王國維는 《書作冊詩尹氏說》이라는 문장에서 《尚書·畢命》의 小序를 인용하여 司馬遷 《史記》의 《周本紀》에 “命作冊畢公”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는 司馬遷이 잘못 이해하여 “畢”字 뒤에 “公”字를 추가한 것이며, ‘作冊’은 官名이고 ‘畢’은 인명이며 周康王 시대의 ‘畢公’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고증하였다.

13) 趙誠(1998), 《金文的“隹·唯”》, 《百年誕辰紀念文集》.

14) 王暉(1989), 《試釋“在”的兩種罕見用法》, 《古漢語研究》2期.

15) 唐鈺明(1990), 《其·厥考辨》, 《中國語文》4期.

16) 唐鈺明(1990), 《古漢語動量表示法探源》, 《古漢語研究》2期.

17) 陳永正(1986), 《西周春秋銅器銘文中的連結詞》, 《古文字研究》第15輯; 《西周春秋銅器銘文中的語氣詞》, 《古文字研究》第19輯, 中華書局.

다.18)

2.3 竹簡과 帛書

최근 출토문헌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은 바로 戰國·秦·漢 시대의 죽간·백서 자료들이다. (참고로 최근 발굴된 戰國·秦·漢 시대의 중요한 자료를 정리하면 부록(1), (2)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裘錫圭 선생은 簡帛 文獻이 古書를 校勘하고, 당시의 언어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¹⁹⁾ 특히 戰國·秦·漢 시대의 簡牘 및 帛書의 발굴에 따른 가치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유실된 佚書의 발견으로 중국 고문헌의 내용이 더욱 풍부해졌을 뿐 아니라, 일부 학술사 분야에서 미결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단서가 제공되었다. 예를 들면, 《漢書·藝文志》에 “晏子”라고 기록된 今本 《晏氏春秋》 및 《六韜》·《尉繚子》에 대해 일반적으로 모두 《漢書·藝文志》에 기록된 原本이 아닌 漢 이후의 僞作으로 여겼는데, 銀雀山의 西漢初期 묘에서 이러한 서적의 일부 筆寫本 죽간이 발굴되면서 原本임이 밝혀진 경우가 있다.

둘째, 現存하는 古書에 대한 考証, 즉 古書의 時代, 眞僞 및 빠진 부분에 대한 교정과 보충, 古書의 문장 내용 解讀에 있어 확실한 근거를 제공해준다.

18) 趙平安(1991), 《論銘文中的一種特殊句型》, 《古漢語研究》 4期.

19) 裘錫圭 교수는 〈中國古典學重建中應該注意的問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자료의 출토로 오래 전에 유실된 많은 선진 古文獻이 새롭게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고, 현재 전해지는 많은 先秦 古文獻은 각 今本에 비해 더욱 오래된 簡牘 및 帛書 형식의 古本을 가지게 됨으로써 과거 古書 중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없었던 많은 부분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을 바로 잡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일찍이 보편적으로 漢代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지던 많은 古書들이 확실히 先秦 시기의 작품임이 증명되었고, 戰國末期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지던 古書들이 戰國 中期 심지어는 더욱 이른 시기의 작품임이 밝혀졌다. 아울러 先秦 古書의 체제 또한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老子》는 馬王堆 漢墓와 郭店 楚簡에서 모두 발견되었는데, 竹簡 《老子》甲本에 “絕知弃辯, 民得百倍. 絕巧弃利, 盜賊无有. 絕爲弃慮, 民得季慈.” 라고 기록되어 있고, 今本 《老子》 第十九章과 馬王堆帛書 《老子》本 第六十三章에도 이러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絕知弃辯” 구절의 경우 今本 및 馬王堆帛書에서 모두 “絕圣弃知”라고 하였으며, “絕爲弃慮”의 구절은 今本 및 馬王堆帛書에서는 모두 “絕仁弃義”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사실은 儒家와 道家 사상의 분기점이 되는 글자인 “圣”·“仁”·“義”가 郭店 楚簡에서는 “辯”·“爲”·“慮”로 기록되어 있어 그 자료의 가치가 매우 높다.²⁰⁾

셋째, 簡帛 文獻은 戰國時代에서 秦漢시대의 고대 어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사실은 문헌을 활용한 학자들의 연구 성과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大西克也는 “毋”와 “無”의 용법에 대하여 사상이나 역사서에서는 “無”를 동사로 사용하고 “毋”는 부사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법률 또는 행정 부분의 서적은 동사나 부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毋”를 사용한다는 주장을 하였다.²¹⁾ 何莫邪는 馬王堆帛書 《老子》와 진 죽간 법률 문서의 “弗”자의 용법을 연구하였고,²²⁾ 張麗君은 마왕퇴 백서의 《五十二病方》과 전해져오는 의학서적과 비교하여 양사 “疒”를 정리하였으며 “狀”을 동량사로 보았다.²³⁾ 뿐만 아니라, 徐莉莉는 마왕퇴 백서를 자료로 수를 세는 법을 연구한 바 있다.²⁴⁾ 張萬起는 양사 “枚”가 한대 초기에 생겨났으며 한대 간독 중에서 “枚”의 용법이 상당히 다양하며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혔다.²⁵⁾ 王鐵과 馮春田은 睡虎地秦簡 어법특징을 체계적으로 저술한 바 있다.²⁶⁾

20) 이 밖에 先秦-秦漢간의 출토 文獻은 史料로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대량으로 출토된 簡牘 자료는 그 수량 면에서 中國 古文獻 史料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고 있다. 그 한 예로 長沙에서 발굴된 三國時代 吳나라 簡冊의 경우 150万字 정도로 《三國志·吳書》의 기록의 2배에 달하며, 《三國志》 총 字數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또한 居延에서 발굴된 吳簡은 3만 점에 달해 三國史 연구 자료를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21) 大西克也(1989), 〈論“毋”·“無”〉, 《古漢語研究》 3期.

22) 何莫邪(1992), 〈馬王堆漢墓「老子」手抄本和「秦律」殘卷中的「弗」〉, 《古漢語研究》 4期.

23) 張麗君(1993), 〈針灸量詞“疒”“壯”考釋〉, 《古漢語研究》 1期.

24) 徐莉莉(1997), 〈馬王堆漢墓帛書《肆》所見稱數法考察〉, 《古漢語研究》 1期.

25) 張萬起(1998), 〈量詞“枚”的產生及歷史演變〉, 《中國語文》 3期.

3. 출토문헌을 통해서 본 문미어기사의 기원과 “乎”의 발전

3.1 문미어기사의 기원

상고 한어에서는 문미어기사를 사용하지 않고서 의문을 나타내는 문장이 많았다. 예를 들면:

癸酉卜, 乙亥不風, 乙亥其風? (《乙》435)
 乙亥일에 바람이 불지 않을까요? 乙亥일에 바람이 불까요?
 我生不有命在天? 《書·西伯戡黎》 (《史記殷本紀》에는 문장 끝에 “乎”가 있음)
 오늘 우리의 삶은 목숨이 하늘에 달려있지 아니한가?
 我有嘉客, 亦不夷憚? (《詩·商頌·那》)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반갑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상고시기 한어에 문미 의문어기사가 없었을까? 王力과 郭錫良선생이 서주 이전 시기에는 어기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張振林은 춘추시기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일찍이 郭沫若선생은 갑골문의 “乎”를 의문어기사로 여긴 바 있다.²⁷⁾ 그렇다면 어느 시기부터 문미어기사가 사용되었으며, 어떤 문미어기사를 기원으로 삼아야할지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1) “印(抑)”·“執” 기원설

갑골문에서 “印(抑)”·“執” 두 자는 자주 쓰였던 글자로, “印(抑)”은 扌 邑으로 손으로 다른 사람을 꿰어앉게 하는 형상이며, “抑(抑)”자의 고자이며, 印族이라는 명사로 쓰였다.²⁸⁾ “執”은 扌 彳자형으로 양손에 형벌을 가하는 모습이며

26) 王鏊(1982), 《雲夢秦墓竹簡所見某些語法現象》, 《語言研究》 1期.
 馮春田(1986), 《秦墓竹簡某些語法現象分析》, 《語言研究》 1期 외 다수.
 27) 張振林(1982), 《先秦古文字材料中的語氣詞》, 《古文字研究》 第7輯, 中華書局.
 28) 島邦南은 《殷虛卜辭綜類》에서 扌와 彳 자형을 印으로 정리하였다. 印과 抑은 古文字 관계이다.

주로 실사인 “포로로 삼다”라는 동사나 명사로 쓰였다.

예를 들면:

(1) 癸亥卜：小方不圍今秋 印(抑)? (합 20476)

癸亥일에 점을 칩니다：小方이 이번 가을에 印족을 포위하지 않을까요?

(2) 貞：遯不執. 王占曰：遯勿執 (합 5929, 5930)

점을 칩니다. 遯가 포로가 되지 않겠지요? 왕이 점을 보고서 말하기를：아마 遯가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980년 李學勤은 《關於師組卜辭的一些問題》문장에서 “印(抑)”·“執” 두 글자를 문미어기사로 인정하였으며,²⁹⁾ 1982년 미국 스탠포드대학 David S. Nivison 선생도 《問問》에서 “이교수의 연구로 인해 상대의 貞人 이 의문문을 만들 때 의문형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하며 이 씨의 설을 따랐다.³⁰⁾ 두 학자가 거론한 문미어기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癸酉卜，貞：方其正今二月印(抑)，不執. 余曰：不其正. 允不. (합 20411)

癸酉일에 점을 쳐서 묻습니다. 적인 방이 이번 이월에 침범하러 올까요? 침범하러 오지 않을까요? 내가 점쳐서 말하기를：아마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과연 침범하지 못했다.

癸酉卜，王貞：自今癸酉至于乙酉，邑人見方印？不其見方執？一月。(南·師 1·59)

癸酉일에 왕이 점을 쳐서 묻습니다. 오늘 즉 癸酉일부터 다음 乙酉일까지 邑의 사람들이 적인 方을 탐색할까요? 아니면 적인 方을 탐색하지 않을까요?

위의 “印(抑)”과 “執” 예에 대해서는 1988년 裘錫圭선생도 《關於殷墟卜辭的命辭是否問句的考察》에서 “가장 의심할 바 없는 문미어기사”라고 하였다. 아울러 及을 抑으로 고침과 동시에 李學勤선생이 고석한 師組卜辭³¹⁾ 외에 賓組卜辭³²⁾와 午組卜辭³³⁾에서도 이와 관련된 51조의 예를 찾아냈다.³⁴⁾

29) 李學勤 “印”을 “反”자로 여김.

30) 1982년 상대문명국제토론회에서 발표한 원고임.

31) 林澐은 1965년 “師組卜辭”는 무정 전기의 왕실 복사라고 고증하였다. (〈甲骨斷代中一個重要問題的再研究〉, 《古文字研究》 第1輯, 1979年.)

32) 師組卜辭와 마찬가지로 武丁시기 왕의 복사이다.

즉, 이 세 편의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모두 師組卜辭 중의 “印”과 “執”을 문미어기사로 여기자는 것이다. 그러나 “印”과 “執”에 관련된 51조의 예를 모두 문미어기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裘錫圭선생이 예로 든 賓組卜辭 중의 “印”·“執”은 문미어기사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壬午卜, 爭貞 : □其來印(抑)? 不其來執?《合》800

壬午일에 점을 쳐서 묻습니다 : 印(抑)족은 공납하는 것이지요? 일반포로를 보내는 것은 아니지요?

(2) 貞 : 御婦印(抑), 勿執? (49)《合》802

점을칩니다 : 禦가 印(抑)족을 아내로 맞이할까요? 일반 포로로 하지 말까요?

(1) 문장의 “來”를 裘先生은 자동사로 여기며 “印(抑)”·“執”이 “정반 선택의 문문”의 문미어기사로 쓰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印(抑)”·“執”이 의문어기사로 쓰였다면 올 것인지 아니면 오지 않을 것인지의 문제를 묻는 문장이 되므로 굳이 정반 선택의문문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卜辭에서 “來”는 사실 타동사와 자동사의 용법 둘 다 쓰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 甲辰卜, 覡貞 : 兕來白馬? 王占曰:吉, 其來馬五. (丙 157)

甲辰일에 覡이 점을 쳐서 묻습니다 : 兕가 白馬를 공납할까요? 왕이 복조를 보고 말하기를 길하다. 5마리의 말을 보내올 것이다.

(4) 貞 : 兕來犬? 不其來犬? (丙 342)

점을칩니다 : 兕가 개를 공납할까요? 개를 공납하지 않을까요?

(5) 禽不其來舟? (乙 7203)

禽이 배를 보내오지 않을까요?

윗 문장의 “來”는 모두 타동사로 쓰여 ‘공납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33) 陳夢家是 午組卜辭에 午·兕 두 사람의 貞인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34) 裘錫圭(1988), 〈關於殷墟卜辭的命辭是否問句的考察〉, 《中國語文》1期: 이 중에는 李學勤이 든 예가 21조 있다.

따라서 예문 (1)의 “□其來印(抑)? 不其來執?”의 “印(抑)”·“執”은 “來”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점을 치며 묻는 내용으로 “某人 또는 某 지역에서 공납하는 것이 印족의 사람이지만 일반 포로는 아닌 것이지요?”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往來”의 “來”처럼 자동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복사에서 “來羌(강인을 공납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來印(抑)(인족을 공납하다)”과 “來執(포로를 공납하다)”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用執? 用印(抑)?” (續存 2.268)
 (포로로 할까요?) (인족을 바칠까요?)

위의 문장도 구선생은 문미의문어기사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卜辭중의 정반의문문은 “雨”(정문) “不雨?”(반문) “雨不雨?”(선택의문문) 형식을 취하므로, 두 개의 “用”을 사용하여 정반의문문형으로 묻는다는 것 역시 복사 문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아래의 예문들은 “印”·“執”을 실사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1) 癸酉卜, 貞 : 方其正今二月印, 不執. 余曰: 不其正. 允不. (合 20411)
 癸酉일에 점을 쳐서 묻습니다. 적인 방이 이번 이월에 印족을 잡을까요? 포로로 잡지 못할까요? 내가 점쳐서 말하기를 : 아마 잡지 못할 것이다. 과연 잡지 못했다.

(2) 癸酉卜, 王貞: 自今癸酉至于乙酉, 邑人見方印? 不其見方執? 一月. (南·師 1·59)
 癸酉일에 왕이 점을 쳐서 묻습니다. 오늘 즉 癸酉일부터 다음 乙酉일까지 邑의 사람들이 적인 方을 포로로 삼으려고 염탐할까요? 아니면 염탐하지 않을까요? 1월에.

(3) 戊申卜 : 方啓自南, 其圍印. 戊申卜: 方啓自南, 其圍印. (合 20415)
 戊申일에 점을 쳐서 묻습니다. 方이 남쪽을 열고서 들어오면 印族을 포위할까요?

(4) 癸亥卜 : 小方不圍今秋印. (合 20476)
 癸亥일에 점을 쳐서 묻습니다. 小方이 이번 가을에 印족을 포위할까요?

(5) 涉三羌, 既獲印. / 允獲印. (合 19755)

涉河의 三羌이 이미 印족을 얻었다.³⁵⁾ 과연 얻었다.

필자는 이 주장을 다시 한 번 검증하기 위하여 “印”·“執”과 관련된 기타 고 문자 자료와 전해져오는 문헌 자료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상대 금문에는 아예 “印”·“執”이 쓰인 바가 없으며, 다만 서주시기 이후 청동기에 처음 보인다. 《毛公鼎》의 “用印邵皇天”으로 이때 “印”은 “仰”의 의미로 쓰였으며, 《曾伯簠》 “印變繁湯”의 “印”은 “安”의 의미로 “다스리다”라는 실사의 뜻으로 쓰였다. 그리고 “執”은 《兮甲盤》·《散盤》·《多友鼎》과 中山國 《兆域圖》에 “잡다”·“처리하다”의 실사로 쓰였을 뿐 문미어기사로 쓰인 용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

이 시기 전해져오는 문헌 역시 “印(抑)”과 “執”은 갑골문에서와 같이 실사의 의미로 쓰였으며, 문미어기사로 쓰인 용례는 하나도 없다. 다만, 전해져 오는 문헌 중 《左傳》·《論語》·《孟子》 등에서 전환이나 선택의미로 쓰인 접속사 용례가 있는데 모두 춘추전국시기 이후의 일이다.³⁶⁾

사실 갑골문에서 문미어기사로 자주 사용되었던 것이 전국시기 문헌에 와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면 언어 발전 규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춘추전국시기 문헌에는 이미 乎, 耶(邪), 歟, 哉 등의 어기사가 활발하게 사용되었는데 유독 “抑”과 “執”만 계승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師組卜辭에서는 문미어기사로 자주 쓰이면서 다른 종류의 복사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점이 있고 裘錫圭선생이 예로 든 51조의 의문어 기사 “印”과 “執”을 모두 실사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갑골문에 “印”과 “執” 문미어기사가 존재하였다는 설을 현재로서는 좀 더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哉” 기원설

“哉”자는 갑골문과 금문에 모두 쓰였으며, 갑골문에서는 실사인 재난의 “哉”

35) 이 문장은 驗辭로 對貞卜辭가 아니므로 문미의문어기사가 필요 없다.

36) 張振林(1982). 〈先秦古文字材料中的語氣詞〉, 《古文字研究》第7輯, 中華書局.

자와 “才”의 가차자로 문미어기사로 사용되었다는 설이 있다. 郭沫若은 그 증거로 《殷契粹編考釋》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든 바 있다.

- (1) 貞：呼伐邛人才(哉).
 貞：勿人才(哉). (合 6252)
 점을 칩니다. 사람을 불러 邛을 치고 인제를 지낼까요?
 점을 칩니다. 인제를 지내지 말까요?
- (2) □五牲二□用才. (合 34406)

위의 예문에 대하여 裘錫圭선생(1988)은 “才(哉)”자를 의문어기사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고대 한어에서 의문을 표시하는 “哉”는 반문형식이나 의문대사, 반문 부사가 함께 쓰일 때 반문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장은 “哉”로 읽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썰는 위의 문장에서 “才”자 다음에 못 다 새긴 글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³⁷⁾ 이 견해에 대해서는 필자도 구선생의 설을 따른다. 서주 금문 시기에 이르면 “哉”자가 비로소 문미어기사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王曰：師詢，哀哉！今日天疾畏降喪。《師詢簋》
 師왕이 말하기를：師詢이며, 슬프구나! 오늘 하늘이 진노하여 주나라에 상관을 내리셨다.
 哀哉! 用天降亦喪四國。《禹鼎》
 슬프구나! 하늘이 사방에 상관을 내리셨다.

(3) “乎” 기원설

갑골 복사중에는 “乎”자가 문미에 여러 차례 쓰였기 때문에 郭沫若은 아래 문장의 “乎”자를 문미어기사라 여겼다.³⁸⁾

丁未卜，扶：侑咸戊、學戊乎？（《殷契粹篇》425）

37) 裘錫圭(1988), 《關於殷墟卜辭的命辭是否問句的考察》, 《中國語文》第1期.

38) 管燮初 선생도 《甲骨刻辭的語法研究》에서 《殷契粹篇》 425를 인용하면서 “乎”를 瞿瞿와 선생의 의견을 따라 사실상은 주진시기의 “乎”자라 여기고 문미 의문어기사라 여기고 있다.

정미일에 扶가 점을 쳐서 묻습니다 : 咸戊와 學戊에게 侑제를 지낼까요?

그러나 구선생은 “乎”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내세웠다.³⁹⁾ 이 글자가 제사를 받는 사람 이름 뒤에 쓰였는데 그 뒤에 희생 제물 단어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乎”를 “제사와 관련 있는 어떤 대상이다”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乎”의 문미 의문어기사 기원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⁴⁰⁾ 張玉金선생도 구선생의 설을 따라 “乎”자가 아마 동사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¹⁾ 결국, 두 학자 모두 “乎”자에 대하여 미결 과제나 추측의 형태로 남겨 두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면 두 선생의 설을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壬午卜 : 燎土, 延巫帝乎. (합 21075)

壬午일에 토신에게 燎제를 지내고 연이어 帝에게 巫제를 지낼까요?

甲子卜, 王貞 : 土方其敦乎. (합 20392)

甲子일에 왕이 점을 쳐서 묻습니다.

王占曰 : 其有甲媿, 吉乎. (합 376反)

왕이 점을 쳐서 말합니다 : 甲일에 분만하면 길하겠다.

필자는 위에 속한 예문의 “乎”자가 구선생이 주장한 것처럼 제사명과 관련된 경우일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그 구체적인 근거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의 예문의 “乎”가 제사시의 희생물이나 제사 명칭이라면 아래 예문처럼 “乎”자 앞에 수사 하나 두등이 와야 하는데 그런 예가 卜辭에 없다.

辛未貞 : 今日告其步于父丁一牛 (합 32677)

辛未일에 점을 쳐서 묻습니다. 오늘 告가 父丁에게 소 한 마리를 드려 步제를 지낼까요?

禱自上甲一牛. (합 14358)

39) 同注 37.

40) 注40의 문장 “它會不會指跟祭祀有關的某件事呢? 所以用‘乎’字結尾的這種命辭究竟是不是問句, 還有待研究.”

41) 張玉金(1995). 〈論殷墟卜辭命辭的語氣問題〉, 《古漢語研究》 3期.

上甲에게 소 한 마리로 禴제를 지내면 어떨까요?

둘째, 일반적으로 제사동사는 아래 예문처럼 “于+제사대상 명사” 앞에 쓰인 것이 당시의 卜辭 어법형식인데, “乎”자가 제사대상 앞에 나온 예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사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일 가능성도 적다.

乙酉卜, 賓貞 : 翌丁亥禴于丁. (合 1916正)

乙酉일에 賓이 점을 쳐서 묻습니다 : 다음날인 丁亥일에 丁에게 禴제를 지낼까요?

翌辛 侑于祖辛一牛. (合 776正)

다음날 조심에게 소 한 마리로 侑제를 지낼까요?

셋째, 張선생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반동사 “呼(부르다)”일 가능성도 적다. 만약 일반 동사라면 “貞 : 乎禽酒岳(禽을 불러와 岳에게 酒제를 지낼까요?)” (合集 14469), “己丑卜, 爭貞 : 亦乎雀燎于云犬(己丑일에 점을 쳐서 爭이 묻습니다. 다시 雀을 불러와 云에게 개로 燎제를 지낼까요?)”(合集 1051)처럼 “乎”자가 다른 동사(제사동사)의 앞에 쓰여야 한다. 이 두 문장의 예는 겸어의 형식으로 쓰인 예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侑祖丁乎”와 같은 문장의 “乎”자를 동사로 여긴다면 이 문장은 “侑祖丁, 乎”로 끊어 읽고, 侑祭로 조정에 제를 지내려고 하는데 가서 어떤 사람을 불러올까요? 라고 해석해야 하는데 어딘가 어색하다.

필자는 이상에서 거론한 세 가지 분석을 근거로 예문 (1)의 “乎”를 문미어 문어기사로 쓰인 의문문으로 해석하게 되면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당시의 어법 현상과도 부합하게 되므로 마땅히 “乎”를 한어 문미어기사의 기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2 “乎”의 발전 과정

“乎”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갑골문에 문미어기사로 20차례 쓰였던 “乎”자가 서주 금문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서주 청동기 명문의 격식이 주는

제한과 기사체 문장의 특성 때문에 어기사가 쓰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시기 의문체 문장의 성질을 가진 금문에는 “乎” 자가 9차례 나타나며, 전국·진한 시기로 내려오면서 사용빈도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래 표(1)과 표(2)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전해져 오는 문헌인 《尙書》에도 4차례, 《詩經》에 11차례(의문어기사 5차례, 감탄어기사 6차례) 등으로 쓰이는 등 출현 빈도수는 적지만 춘추 전국시기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국·진한시기 문헌으로 이어지면서 그 용례가 상당히 늘어나 “乎” 자의 언어 발전 규율을 살필 수 있다. 좀 더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찾기 위해 출토문헌에서 “乎”의 발전과정을 탐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출토 문헌자료의 “乎” 빈도수

출토 문헌	商代 甲骨文	西周 金文	春秋 金文	戰國 金文	竹帛		秦漢	
					竹簡	帛書	竹簡	帛書
乎	20	0	0	9	24	0	52	78

표(2) 고문헌 자료의 “乎” 빈도수

고문헌	莊子	戰國策	國語	東周 列國志	晏子 春秋	管子	韓非子	孟子	春秋 左氏傳	論語
乎	312	302	285	254	197	200	174	127	118	104
고문헌	道德經	楚辭	今文 尙書	詩經	竹書 紀年	公孫 龍子	六韜	關允子	春秋 公羊傳	春秋 穀梁傳
乎	9	19	4	11	3	11	15	9	39	36

(1) 갑골문 중의 “乎”

1. 의문어기를 나타낸다.

甲子卜, 王貞 : 土方其敦乎. 《合 20392》

甲子일에 왕이 점을 쳐서 묻습니다. 土方이 공격하러 올까요?

壬午卜 : 燎土, 延巫帝乎. 《合 21075》

壬午일에 점을 칩니다. 社신에게 燎제를 지내고 연이어 帝신에게 巫제를 지낼

까요?

丁未卜, 扶 : 侑咸戊、學戊乎. 《合 20098》

丁未일에 扶가 점을 쳐서 묻습니다. 咸戊과 學戊에게 侑제를 지낼까요?

2. 추측어기를 나타낸다.

王占曰 : 其唯甲媿, 吉乎. 《合 376反》

왕이 복조를 보며 말하기를 : “만약 甲日에 분만하면 길하겠다.”

(2) 금문 중의 “乎”

전국시기 명문 중의 “乎”字는 중산왕 기물에서만 아홉 차례 문미어기사가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 이유는 중산왕 명문이 상대의 자명체 명문이나 서주시기의 기사체 명문과 그 문체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즉, 중산국 청동기물의 내용은 상대를 설득시키기 위해 논리를 펴고, 선조의 잘못된 행동을 비평하는 의론 문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乎”자 외에도 다른 어기사가 많이 쓰였다.

1. 추측어기

於虜. 欣哉. 社稷其庶乎! 《中山王方壺》

오호, 밝도다. 사직에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2. 반문어기

猶迷惑於子之而亡其邦, 爲天下戮, 而皇(況)才於少君乎? 《中山王方壺》

子之에게 혹해서 그 나라가 망했으니 결국 천하의 치욕이 되었다. 하물며 어린 왕에게 있어서라?

3. 감탄어기

於虜. 先王之德弗可復得. 《鞏鬲 壺》

아아, 선왕의 덕을 다시 회복할 수 없도다.

於虜. 允哉若言. 《中山王方壺》

아아, 이 말이 맞도다.

(3) 전국 시기 竹簡과 帛書 중의 “乎”

1. 의문어기

文王聞之，曰：“雖君亡道，臣敢勿事乎？”上博楚簡《容成氏》
문왕이 그에게 묻자 답하기를：“비록 임금이라도 도가 없으면, 신하가
섬기려 하지 않을까요?”
‘三無乎，無聲之樂，無體[之]禮，無服之喪。上博楚簡《民之父母》
三無란? 소리 없는 음악이요, 걸치레 없는 예요, 상복을 입지 않은 상주이
다.

2. 특정의문문 어기

특정의문문어기라하면 의문대사를 사용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문문에
답을 하도록 하는 문형이다. 許仰民은 전해져 오는 문헌을 이용하여 “乎”를 사
용한 특정의문문이 사용된 시기가 진한시기 이후라고 하였다.⁴²⁾ 그러나 전국
시기 후반 문헌인 上博 楚竹簡에 그 용례가 여러 차례 쓰이고 있기 때문에 특
정의문문의 기원을 전국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何……乎
如天不雨，水將涸，魚將死，其欲雨有甚於我，何必祠乎命乎？
(上博楚簡《魯邦大旱》)
만약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고갈되고 물고기가 죽으니 비가
내리기를 나보다 더 바랄텐데 제사지내고, 명을 내려야 할까요?

3. 감탄어기

成孫弋曰：“矣，善才，言乎！”郭店楚簡《魯穆公問子思》
成孫弋이 말하기를：아 좋구나, 이 말이여!

4. 반문어기

“乎”는 점층을 나타내는 부사인 “況”, 부정부사 “毋”·“不”과 “不可”·“不亦”
등이 “乎”와 호응하여 반문어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에서도 “不亦……乎”,

42) 許仰民(2001), 《古漢語語法新編》, 河南大學出版社, 153p.

“可不……乎”는 고정형식으로 출현빈도가 가장 높다.

況……乎

龜筮猶弗知，而況於人乎？（郭店楚簡《緇衣》）

점치는 술사도 모르는데 하물며 어찌 사람이 알겠는가?

龜筮猶弗知，而況於人乎？（上博楚簡《緇衣》）

점치는 술사도 모르는데 하물며 어찌 사람이 알겠는가?

毋……乎

孔子答曰：「邦大旱，毋乃失諸刑與德乎？」（上博楚簡《魯邦大旱》）

孔子가 답해서 말하기를 노나라 大旱이 형과 덕보다 더 잃는 것 아니겠
습니까?

不……乎

行此者，其有不王乎？孔子曰：……（上博楚簡《孔子詩論》）

이렇게 행하는 자가 왕노릇하지 않겠는가? 공자가 답하여 말하기를

可不……乎

反此道也，民必因此重也以復之，可不慎乎？（郭店楚簡《成之聞之》）

반대로 도에 거슬린다면 민중이 이로 인해 더 보복을 가할 것이니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不亦……乎

出以百兩，不亦有離乎？（上博楚簡《甘棠》）

수레 백대로 보내니 어찌 이별이 아니겠는가?

(4) 진한 竹簡과 帛書 중의 “乎”

1. 의문어기

弟子曰：吾何執？執御乎？執射乎？（漢簡《論語·子罕》）

내가 무엇을 잡아야 하겠는가? 말 모는 일을 잡아야 하겠는가? 활 쓰는 일
을 잡아야 하겠는가?

2. 반문어기

毋……乎

居間而行間，毋乃大間乎？（漢簡《論語·雍也》）

자신이 간략함에 처하고, 다시 간략함을 행한다면, 너무 간략한 것은 아
닙니까?

名者，人治之大者也，可毋慎乎？（漢簡《儀禮》）

명이란 사람이 다스려야 할 가장 큰 일이지들,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3. 특정의문어기

何……乎

誠使天下之民皆懷仁愛之心，禍災何由生乎！（漢簡《文子》）

진실로 천하의 백성들에게 인애하는 마음을 품으라 했거늘 재앙이 어찌 생겨나는가?

4. 감탄어기

鄙哉，罔罔乎！（漢簡《論語·憲問》）

비루하다. 너무 단단하구나.

吾誰欺？欺天乎！（漢簡《論語·子罕》）

내 누구를 속였는가? 하늘을 속였구나?

4. 출토문헌과 전해져오는 문헌의 문미어기사 운용

서주 춘추시기의 서적인 《詩經》에 쓰인 많은 어기사, 예를 들면 “兮(18 3)·只(4)·哉(51)·也(62)·且(13)·猗(3)·叕(8)·而(6)·与(3)·矣(9 9)·焉(13)·乎(11)·已(4)·止(85)·其(5)” 등이 商, 周, 春秋 및 戰國 시기 청동기 문헌에는 잘 쓰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학자들이 《詩經》의 진실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선진시기로부터 전해져 오는 문헌에 쓰인 많은 어기사는 분서갱유로 이후 후대 사람들이 고쳐 써넣은 것이라는 설이 난무하게 되었고, 張振林 선생은 출토문헌을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어기사가 춘추전국시기에 와서야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詩》·《書》·《易》에 대한 문헌적 가치는 많은 사람들의 연구 결과와 평가가 있었으며, 특히 대량의 어기사를 사용하고 있는 《詩經》의 언어 사료적 진실성은 곽말약 선생 등에 의해서 여러 차례 인정받은 바 있다.⁴³⁾

그러므로 우리는 진의 분서갱유로 인해 후대 사람들의 침삭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도 안 될 것이며, 곡말약의 설대로 《詩》·《書》·《易》 등의 문헌 전체적인 가치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詩經》에 대량으로 쓰였던 어기사들이 같은 시대 출토문헌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가 출토문헌이든 전해져오는 문헌이든 문장의 성격이 다르므로 인해 문체도 달라지고 그에 따른 어기사 사용도 달라져서 생기는 운용상의 차이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 출토 문헌 자료의 문체와 문미어기사의 운용

《商周青銅器銘文選》東周篇에 실린 392편의 청동기 명문에 나타난 어기사를 조사해보면 춘추시기에는 《吳王光鑿》已(1), 《僂儿鐘》哉(1), 《犀壺》哉(1)로 단 3차례 어기사가 사용되었다. 전국시기 역시 어기사가 있는 명문은 6편으로 28개의 어기사가 사용되었을 뿐이다.

《中山王響鼎》: 哉(5), 施(也)(4), 矣(1), 乎(7)

《中山王方壺》: 焉(2), 施(也)(3), 哉(1), 乎(1)

《鞞鬲壺》: 乎(1) ; 《鄗陵君豆》: 哉(1) ; 《陳侯因賓敦》: 哉(1) ; 《新蔡符》: 医(也)(1)

이렇듯 춘추와 전국 시기의 문미어기사가 392편의 명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에 불과하고, 전국시기 100자 이상의 명문 중에 중산국 3편의 명문에 실린 어기사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쓰인 바 없다. 뿐만 아니라, 鄂君啓節은 舟節에 164자, 車節에 147자나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기사가 단 한 글자도 없다.⁴⁴⁾ 그 원인은 무엇일까?

43) “盡管《詩經》可能經過刪改潤色，但在基本上是原始資料。因此，我們對於《詩經》的文學價值和史料價值，更有了堅實的凭証。……《石鼓》更重要的貢獻是保證了民族古典文學的一部極豐富的寶藏《詩經》的真實性。”

44) 즉, 청동기 문장은 시간을 이용하여 단문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였기 때문에 어기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毛公鼎》·《多友鼎》·《鄂君啓節》·《散盤》 등은 객관적 사건과 대상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명문 작자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낼 수도 없었고 그 결과 어기사의 잔재를 볼 수 없는 것이다.

첫째, 청동기 명문의 격식이 주는 제한과 비구어적 문장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대 청동기는 모두 제례용으로 주나라의 종법제도를 유지하는데 사용되었던 기물이다. 따라서 그 명문은 우아하고 정중하여야 했기 때문에 언어도 잘 다듬어져 있다. 문장은 시간이 흘렀지만 정형화된 틀 속에서 이전 시기의 문형을 답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주시기 《毛公鼎》과 춘추시기의 《叔夷鏞》문장을 비교해보자.

《毛公鼎》: 女母(母)敢妄(荒)寧, 虔夙夕, 惠我一人, ……康能四國, 俗(欲)我弗乍先王憂, 女母(母)敢墜在乃服, 綈(恪)夙夕, 敬念王畏(威)不賜(易)
 《叔夷鏞》: 女不墜, 夙夜宦執而政事
 女康能乃又(有)事遷乃隸寮, 女專余于艱恤, 虔恤不賜(易), 左右余一人

이 중에서 “墜”·“夙夕”·“康能”·“不易”·“我(余)一人” 등의 단어는 두 청동기 명문에서 자주 쓰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명문에도 자주 쓰인 용어들로 언어의 답습 현상을 알 수 있다. 또 서주 시기의 《井人女鍾》과 전국시기의 《陳侯因甯敦》 명문을 비교해보면 모두 제사류의 문장들로, 그 순서가 우선 선조의 공덕을 찬양하고, 기물을 만든 제작자 선조의 공덕을 이어받게 됨을 널리 알리며, 마지막으로 제기를 만들어 선조의 공덕을 추념하고 조상이 복을 내려 줄 것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두 개가 완전히 같아 문형이 답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⁵⁾ 특히, 서주 후기 주왕실의 예악이 붕괴되면서 명문의 언어도 그 생기를 잃고 틀에 박힌 귀족 서면어로 바뀌면서, 춘추 전국시기에 사용되었던 구어의 빠른 변화를 따라오지 못했다.⁴⁶⁾ 결국, 청동기 명문의 장중한 문언 형식 때문에 어기사가 적게 쓰인 것이다.

45) 서주시기 恭王과 懿王에서부터 厲王과 宣王시기에 이르기까지 40여 편의 책명류 명문은 명문 내용의 순서가 다음과 같다. 시간, 지역, 명을 받은 자, 책명사, 명을 받은 자가 널리 알림, 기물을 만든, 축원의 순서이다.

46) 예를 들면 춘추 전기인 《國風》에 보이는 주어 뒤에 “者”를 더하는 형식이나, 술어 뒤에 어기사 “也”를 더하는 판단형식이 춘추시기의 《孫子兵法》과 《左傳》, 전국시기 말기의 《睡虎地秦墓竹簡》에는 보이지만, 명문에는 한 차례도 쓰이지 않았다. 예를 들면: 《鄆風·君子偕老》: “展如之人兮, 邦之媛也.” 《睡虎地秦簡·爲吏之道》 “舌者, 符璽也.”가 있다.

둘째, 청동기에는 기사체 문체가 많기 때문에 어기사의 운용이 활발하지 못했다. 청동기 명문을 살펴보면 상대는 自名體⁴⁷⁾의 내용이 많았고 記事體⁴⁸⁾의 문장이 적었던 반면, 서주시기는 記事體의 문장이 주를 이루었고 記言體⁴⁹⁾의 문장이 적었다. 이 현상이 춘추전국시기에 이르면 다시 자명체가 많아지고 기사체, 기언체, 의론체가 늘어나는 형국으로 나타난다.

문미어기사 운용면에서 살펴보면, 초기 명문의 自名體는 주로 청동기 소유자 표기 위주이므로 당연히 수록 문자가 적었으며 따라서 어기사도 있을 수 없었다. 記言體 역시 칭송의 성질을 가진 4자구로 대부분의 문장이 왕이 신하에게 훈계하는 내용이나 명령이 위주가 되는 기사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문체에서도 다양한 어기사가 필요 없었고 다만 어기를 강조하는 “哉”자가 몇 개 쓰였을 다름이다.

- 《大克鼎》: “敬夙夜用事, 勿廢聯命……, 敬哉!”
 주야로 애써 일하고…… 명을 받드는구나!
 《何尊》: “馭命, 敬享, 哉!”
 철저히 명을 받들어 모시는구나!

기사체 문장은 동주시기의 초죽간 중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전국시기 죽간인 曾侯乙墓 竹簡, 長沙仰天湖 竹簡, 信陽長台關 竹簡, 江陵望山 2호묘 竹簡, 包山竹簡 등의 遺策류 문장은 모두 기사체로 어떠한 어기사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長台關 遺策류와 함께 출토된 長台關 죽서를 보면 “也” 14개, “乎” 4개, “哉” 4개, “與” 4개, “也歟” 1개로 진술 의문 감탄어기가 골고루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長台關 죽서는 유가의 정치와 도덕을 서술한 ‘형법 전서(형

47) 自名體란 《禮記·祭統》에서 “銘者, 自名”라 한 것처럼 기물을 제작한 사람 이름이나 조상의 이름을 새긴 명문을 말한다.
 48) 상대 帝乙과 帝辛 시기 이후부터 10-40여자가 있는 장편 명문에 기물을 만든 이유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사나 상여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시간, 장소, 인물, 사건 등을 함께 기록한 문체를 記事體라고 한다.
 49) 신하에게 훈계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명문을 기언체라 하며 서술적인 내용보다는 구어적인 대화 내용을 기록한 문체를 말한다.

전)'과 같은 문장이며, 의론체 문장에 속하므로 어기사가 많이 사용되었다. 광점죽간과 상박죽간 역시 죽서로 의론문의 성격을 띄고 있어 어기사가 다양하게 쓰였으며, 문미어기사 “乎”자만 예를 들더라도 그 숫자가 상당히 많다.

楚竹簡	郭店竹簡						上博竹簡					
	老子丙	魯穆公問子思	語叢	二三子問	緇衣	成之聞之	孔子詩論	緇衣	容成氏	魯邦大旱	仲弓	民之父母
乎	1	1	5	2	1	1	4	1	3	3	1	4

위에서 거론한 죽간이 잔 조각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실제 사용된 어기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기 명문은 자명체, 기사체라는 문체의 제약과 보수적이고 비구어적인 특성 때문에 어기사가 적게 쓰였으며, 중산국 청동기에 수록된 의론체 문장의 명문이나 죽간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어기사가 사용되었다.

(2) 전해져 오는 문헌의 문체와 문미어기사의 운용

《詩經》은 시인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하여 다양한 문미어기사를 사용하여 시를 강조하거나 과장해서 시의 강약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드러나게 하는 작용을 하였다. 이에 비해서 동시기 산문체 문헌인 《書經》에는 문미어기사가 哉(74)·矣(7)·焉(4)·乎(1)·已(1) 밖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詩經》에서 가장 자주 쓰이고 있는 문미어기사 “也”조차도 쓰이지 않았다. 그런데 《書經》은 편명에 따라 문체를 달리하기 때문에 문미어기사의 운용도 달랐음을 알 수 있다. 《尚書》14편 중에서 〈顧命〉·〈堯典〉·〈禹貢〉·〈金縢〉 등의 4편은 기사체에 해당하며, 이 중 〈堯典〉은 기사체와 기언체의 문장이 함께 섞여있는데 기언체 부분에는 9개의 어기사가 등장하지만(6개의 “哉”, 2개의 “欸”, 1개의 “乎”), 기사체 부분에는 어기사가 하나도 쓰이지 않았다. 〈顧命〉편에도 역시 “哉”와 “欸” 두 개가 기언 부분에 쓰였을 뿐이다.

또 《周易》을 살펴보면, 《周易》은 은상시기와 서주시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점복서로 문장 형식은 갑골문 복사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갑골문 卜辭는 기사체 산문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만, 《周易》은 정형화된 운문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 마치 《詩經·國風》의 비흥구와도 같은 시적 양상을 나타내며 여기서가 다양하게 쓰였다. 상대의 卜辭는 왕실에서 보관해야 하는 공문서로 관리가 매 번 점친 활동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해야 했고, 문체도 산문 형태라서 여기서를 보강할 필요가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周易》은 권위 있는 무속인의 무속 언어로 구어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많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周易》에 쓰인 비흥구나 격언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⁵⁰⁾

《孫子兵法》은 일반적으로 전국시기 초기의 저술로 알려져 있다. 13편의 내용은 13가지용병술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전형적인 의론문이다. 여기서 사용된 여기서를 살펴보면 “也”가 196개, “乎”가 5개(1개는 시비의문문, 2개는 반어문, 2개는 감탄문), “哉” 2개, “矣” 12개가 사용되었다. 이 중에서 2개의 “乎”자와 1개의 “哉”자가 감탄어기에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의론문에 쓰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춘추시기 기언체 문헌인《論語》와 《國語》중에도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부분에서는 각종 여기서가 다양하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문미어기사는 상고시기부터 지금까지 변화 발전을 거치면서 현대 한어로 이어져 상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어 문미어기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기원의 문제와 여기서의 운용 문제는 오랫동안 학자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었을 뿐, 지금까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였다. 일찍이 곽말약 선

50) 《周易·明夷》初九：明夷于飛，垂其翼。君子于行，三日不食。

《泰》九三：无平不陂，无往不复。

《損》六三：三人行損一人，一人行則得其友。

생에 의해 갑골문의 “乎”자가 문미어기사로 제기된 바 있었으나, 여러 학자들에게 의해서 부인되었으며 문미어기사 시작시기도 서주, 혹은 춘추시기로 제기된 바 있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필자는 복사의 어법적인 특징을 다각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여전히 상대 갑골문에서 어기사의 기원을 찾게 되었으며, 어떤 문미어기사를 기원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印”·“執” 기원설, “哉” 기원설, “乎” 기원설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乎”를 문미어기사의 기원으로 삼게 되었다.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증을 삼기 위해 갑골문, 금문, 전국시기 죽간본과 한대 죽백본 등을 이용하여 “乎”의 용법상의 발전 과정을 살폈다.

또 하나, 서주 춘추시기의 고문헌인 《詩經》에 쓰인 수많은 어기사가 동시기 고문헌 《書經》에는 문미어기사가 불과 9개 밖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西周 청동기 명문에는 단 한 차례도 어기사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역시 출토문헌과 고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그 이유를 찾아보았다. 그 분석 결과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사성 시문체류:《周易》의 卦와 爻, 《尚書》 중의 〈呂刑〉·〈臯陶謨〉·〈禹貢〉과 《洪範》의 4자구 문단, 《詩經》의 《豳風·七月》과 《大雅·皇矣》·《公劉》, 춘추시기 청동기 명문의 4자구 운문, 선진시기 특히 長沙 楚帛書의 甲乙편과 광점 초죽간과 마왕퇴 백서 《老子》 등이 있다. 이러한 문장들은 고대 시문체의 전통을 이어 받아 3자구 또는 4자구 형식으로, 사실을 기록하고 기억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어기사가 적게 쓰였다.

둘째, 가사체류: 《詩經》·《石鼓文》·《楚辭》등은 서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문미어기사를 사용하여 시를 강조하거나 과장해서 시의 강약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드러나게 하는 작용을 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사가 음악이나 춤과 어울려야 하므로 박자와 소리를 끌기 위해서도 어기사가 많이 사용되었다.

셋째, 기사체류: 은상시기의 卜辭, 상대 자명체와 기사체의 청동기 명문, 《尚書》의 〈堯典〉·〈禹貢〉·〈顧命〉·〈金縢〉, 《逸周書》의 〈克殷解〉·〈世俘解〉·〈嘗麥解〉, 전국시기 죽간 중의 견책류, 문서와 잡기류, 長沙 楚帛書 등

은 자연 현상, 사회현상, 정치 역사 사건을 서술한 객관적 기록이므로(복사 점 복류의 의문문, 매일 금기 사항을 기록한 설명 부분은 제외)어기사가 적게 쓰였다.

넷째, 誥命이나 盟書체류: 기언체 청동기 명문, 《尙書》의 〈皐陶謨〉·〈大誥〉·〈多方〉·〈微子〉·〈湯誓〉·〈文侯之命〉, 《逸周書》의 〈商誓解〉·〈皇門解〉·〈祭公解〉, 전국시기 《侯馬盟書》·《鄂君啓節》 등 이러한 종류의 문헌은 왕이 신하인 제후나 일반백성에게 훈계하는 내용이므로 기사어기사나 감탄어기사인 “哉”이외는 자주 쓰이지 않는다.

다섯째, 의론체류: 전국시기 명문 《中山王昔鼎》·《中山王昔方壺》, 《尙書》의 〈呂刑〉·〈洪範〉, 長台關竹書 《孫子兵法》, 《國語》·《論語》·《荀子》 등의 춘추 전국시기의 제자 산문은 상대를 설득시키려는 논리성이 강한 의론문이므로 어기사가 많이 쓰였다. 그러나《侯馬盟書》·《秦青川木牘》·《秦律雜抄》등 의론문이라 할지라도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장에 서는 어기사가 적게 쓰였다.

【參考文獻】

- 何樂士(2000)《古漢語語法研究論文集》，商務印書館
- 楊合鳴(1993)《詩經句法研究》，武漢大學出版社
- 趙克勤(1994)《古代漢語詞匯學》，商務印書館，1994
- 何定生(1928)〈漢以前的文法研究〉，中山大學語言歷史研究周刊(三)
- 何定生(1928)〈尚書的文法及其年代〉，中山大學語言歷史研究周刊(五)
- 管燮初(1981)《西周今文語法研究》，北京：商務印書館
- 王力(1980)《漢語史稿》中冊 中華書局
- 郭錫良(1988,1989)〈先秦語氣詞新探〉，《古漢語研究》
- 李達良(1980)《中國語文研究》，香港中文大學 1期
- 張振林(1982)〈先秦古文字材料中的語氣詞〉，《古文字研究》
- 李學勤(1980)〈關於師組卜辭的一些問題〉，《古文字研究》
- 裘錫圭(1988)〈關於殷墟卜辭的命辭是否問句的考察〉，《中國語文》
- 趙誠(1992)〈甲骨文動詞探索〉，《古文字研究》
- 張玉金(1990)〈卜辭中暨的用法〉，《中國語文》
- 張玉金(1988)〈甲骨文卜辭中“惠”和“唯”的研究〉，《古漢語研究》
- 陳昭容(1998)〈關於“甲骨文被動式”研究的檢討〉，《甲骨文發現一百年學術研究會
討論集》
- 王暉(1989)〈試釋“在”的兩種罕見用法〉，《古漢語研究》
- 陳永正(1986)〈西周春秋銅器銘文中的連結詞〉，《古文字研究》
- 趙平安(1991)〈論銘文中的一種特殊句型〉，《古漢語研究》
- 大西克也(1989)〈論“毋”、“無”〉，《古漢語研究》
- 王鏊(1982)〈雲夢秦墓竹簡所見某些語法現象〉，《語言研究》
- 馮春田(1986)〈秦墓竹簡某些語法現象分析〉，《語言研究》
- 張玉金(1995)〈論殷墟卜辭命辭的語氣問題〉，《古漢語研究》3期
- 許仰民(2001)《古漢語語法新編》 河南大學出版社

【中文題要】

殷商時代是否已有語氣詞？這是甲骨文發現以來爭論不止的問題之一。最早談到句末疑問語氣詞的是郭沫若。後來王力、郭錫良認為是從西周時期產生的，張振林認為到春秋時代才形成了一個語氣詞系統。李學勤、裘錫圭他們認為卜辭中有句末疑問語氣詞“印”、“執”二字。據我的考察可知：甲骨文“印”、“執”二字放在句末的情況比較複雜，但就文字清晰可識、辭義，又是俘虜之名。這樣理解，並不等於說有關卜辭便不是疑問句了。有極少數卜辭句末的“印”和“執”可能當理解為“句末語氣詞”，但並非所有句末的“印”、“執”都是疑問語氣詞。根據我考察的卜辭中有些“乎”出現在句尾。例如：壬午卜：燎土，延巫帝乎。(合集21075)，丁未卜，扶：侑咸戊、學戊乎。(合集20098)等等。這些例中的“乎”，還是看成句末語氣詞為好。“乎”主要用在疑問句、反問句中，表示疑問和反問語氣。戰國以前“乎”很少用在特指文句中，戰國中期以後才逐漸多起來。

還有先秦文獻中，記事性詩體類、記事體類、銘命類對語氣詞的運用最少，如《周易》卦、爻辭、《尚書》和絕大多數商周銘文，而歌體類、議論體類對語氣詞的運用最多，如《詩經》、《孫子兵法》和中山王銅器銘文等。

【主題語】

출토문헌, 전해져 오는 문헌, 역사어법, 이중증거법, 문미어기사, “印”, “執”, “乎”, 문체

(부록1) 전국시기 죽간 출토현황

	출토지점	출토시기	묘장시기	죽간 수	글자수
1	江陵藤店 M1	1973年	戰國早期	24	47
2	信陽長台關 M1	1957年	戰國早期	148	約1700
3	江陵天星觀 M1	1978年	戰國中期	70	約4500
4	荊門包山 M1	1987年	戰國中期	278	12472
				1(竹牘)	154
5	江陵望山 M1	1965年	戰國中期	24	約1000
6	江陵望山 M2	1966年	戰國中期	67	約900
7	慈利石板村 M36	1987年	戰國中期	4557	約2000
8	德山夕陽坡 M2	1984年	戰國中期	2	54
9	長沙仰天湖 M25	1953年	戰國末期	43	約280
10	長沙五里牌 M406	1952年	戰國末期	37	約95
11	長沙楊家灣 M6	1954年	戰國末期	72	約37
12	臨澧九里 M1	1980年	戰國中期	100	不明
13	江陵秦家嘴 M1	1986年	戰國中期	7	不明
14	江陵秦家嘴 M13	1986年	戰國中期	18	不明
15	江陵秦家嘴 M99	1987年	戰國中期	16	不明
16	江陵九店楚墓	1981年	戰國中期	不明	不明
17	江陵鷄公山 M48	1991年	戰國	不明	不明
18	湖北老河口 M	1992年	戰國	不明	不明
19	湖北黃州市 M	1993年	戰國	不明	不明
20	郭店楚簡	1993年	戰國中期	730	12,072
21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	2000年	戰國末期	1200	35,000

(부록 2) 진한시기 簡帛 출토현황

	간백 명칭	출토시기	수량	글자수
1	四川青川木牘	1980年	1件	146
2	甘肅天水放馬灘簡牘	1986年	460枚/4件	不詳
3	湖北云夢睡虎地秦簡	1975年	1167枚	近3.8万
	湖北云夢睡虎地木牘	1975年	2件	527
4	湖北云夢龍崗秦簡	1989年	約237枚	約3000
	湖北云夢龍崗木牘	1989年	1件	38
5	湖北江陵楊家山秦簡	1990年	75枚	約750
	湖北江陵高台木牘	1990年	4件	142
6	广西貴縣羅泊灣簡牘	1976年	10枚/5件	408
7	湖南長沙馬王堆帛書	1974年	28件	12万多
	湖南長沙馬王堆簡牘	1972/74年	922枚/7件	9000多
8	湖北江陵張家山漢簡	1983-84年	2000多枚	不詳